

연중 제 17 주일

기도서 400 면(B해)
 제1독서 : 2열왕기 4, 42-44
 제2독서 : 에 폐 4, 1-6
 복음 : 요 한 6, 1-15

숨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예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요한 6,11).

강론



함께 사는 데 의미가 있다

박성팔 신부

부름에 화답하여, 세계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가 왔는데, 사람들은 죽어가는 데, 생명이란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우리는 세계, 우리는 밝은 날을 몰아올 무서운 아이들.

위 노래는 24개국 이 가물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1억5천만 아프리카 난민들의 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의 가라성같은 팝스타 46명이 함께 취입한 "우리는 세계"라는 노래의 일부이다. 작년 말 영국의 보브 겔도 프를 주축으로 40여명의 각국 가수가 만든 "그들도 크리스마스를 알고 있나요"에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노래라 한다. 바로 지난 7월 13일 런던과 필라델피아에서 아프리카 난민을 돕기 위해 열린 자선쇼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영국의 평범한 가수 보브 겔도프에 의해 시작된 이날 양쪽의 청중 16만명에 160개국 15억 인구가 아프리카 난민 구호를 위한 T.V 생중계 음악회를 시청, 세계는 하나임을 확인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죽음과 맞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뜨겁고도 간절한 사랑을 보냈다. 이 자선쇼야말로 사랑이 메마른 이 지구촌에 한줄기 빛이었고, 청량수와 같이 우리 모두를 시원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 서로 나누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했다. 그리고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것과 남을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순간이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의 본능중에 가장 강한 것은 생명에 대한 본능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비겁해지기도 하며 어떤 때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혈투도 벌인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 혼자 잘 먹고 살면 그만일까? 아무리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지만 그것은 아니다. 사람이기에 같이 나누고 함께 사는데 사랑다운 것이다. 함께 나누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어 한 소년의 나눔을 통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리 먹이신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다. 성체성사의 상징인 이 사랑의 기적에서 우리는 몇가지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다. 서로 함께 나눔으로써만이 하느님의 사랑을 산다는 것을, 서로 함께 먹고 봉사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함께 사랑하고, 일치하고, 봉사하고, 나눔으로써만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가 생각해 보자!
 (장수 주임신부)



눈이 커서 슬픈 짐승인가!

오나 가나 「소 이야기」가 화제꺼리다. 소를 기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만 복창이 터질 지경이다. 이미 보도된 합평의 그 짧은 농부,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자기 손으로 거의 2년이나 기른 소를 죽일 수 있었을까! 필시 그 소는 커다란 눈망울을 굴리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런데도 얼마나 속이 뒤집히면, 모지락스런 맘으로 칼과 망치를 사다가 그 소를 죽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를 그러한 지경으로 몰고 간 사람(행정 책임자와 정치 책임자)은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소를 죽인 사람만 법의 심판을 받아 일단 말인가!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힘없는 농민들이 피나는 고통과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어찌자고 정부는 82년부터 84년 사이에 암송 아지를 그리도 많이 들여왔는가!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왜 수입가격대로 못나누어 주었는가! 82년 이후 정부가 도입한 최고기값이 2억9천만달러가 넘어도 괜찮은 것인가! 농민만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은 것인가!

지난 19일에도 고산지방에서 소위 「소몰이」라는 농민들의 한뼉한 절규가 있었다. 막상 농민들의 불만은 그들의 소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데 더 큰 자리를 잡고 있다. 어느 농민이, 자신은 그냥 구경만 하는 처지였지만, 어찌서 거기에 관한 보도를 볼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열을 올렸다. 이 게 언론자유가 있는 상황 이냐면서...

이 불별 더위가 당장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대자연의 섭리는 곡식을 익게 하고 있다. 당장의 고통이 두려워서 비겁해 지지는 말자. 농민의 아픔을 달랠 책임자의 고백이 아쉽다.

숨 정 이 산책



성서교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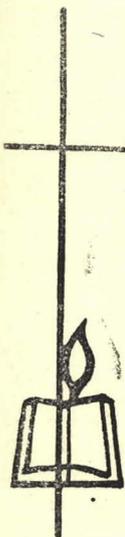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마르 6:31

본문(本文)의 이 대목에는 사도들의 전도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데서 알 수 있다. 「열 두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다」(마르 6:12-13). 이들의 전도는 복음의 선포, 병의 치유였다. 복음 선포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는 것과 「죄의 회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르코에 의하면 사도들이 기름까지 발라 주었다. 이것은 당시 관습이었다(야고 5:14, 루가 10:34).

전도를 마치고 사도들이 돌아와서, 그 성과를 보고하자, 예수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고 하였다. 사도들의 전도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가운데, 예수는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72제자들의 「전도보고」(루가 10:17-20)에 있어서도 예수의 태도를 참고할 수 있다. 전도의 대성공에 제자들이 교만해지고 특의에 찬 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진다면, 이것은 안될 일일 것이다. 예수는 이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사실 그런 경향이 인간의 약점인 것이다.

전도(傳道)는 좋은 일이나, 한편 위험한 것이다. 이 「위험」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위험인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은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전도는 용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전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앙은 인종(忍從), 그 승리란 부쉬진 도기(陶器)와 같은 것에 반해서, 전도는 활동, 그 성공에 승리 쾌감이 동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화려한 「전도사업」을 더 좋아한다.

신앙은 전도를 낳지만, 전도는 신앙을 낳지 못한다. 전도사업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모순」, 이 「디렘마」, 이것이 전도가 짙어질 「십자가」이다. 전도냐, 신앙이냐, 여기에 크리스찬의 「십자가」가 있다.



청소년 특집 ⑥

***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

—교황님 말씀

친애하는 한국의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대하는 것이 나에게서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기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젊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젊다 함은 진실을 귀하게 여길 줄 앎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보람있는 삶의 길을 찾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젊다 함은 진리와 정의와 평화, 미와 선에 이끌림을 말합니다. 젊다 함은 한껏 살고 싶음을, 단, 기쁘게 뜻있게 살고 싶음을 뜻합니다.

젊다 함은 이상과 희망으로 가득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귀한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삶을 여러분이 더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희망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두려움 또한 때로는 그만큼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되는 것이 없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단 하나의 인생이 그것이기지요.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이고 또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음을 뜻합니다.

젊은이라면 누구나 그러듯, 여러분도 사는 데 대해 중요한 물음을 안고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성인사회의 더 넓은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활에는 여러가지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학교는 그토록 무자비한 경쟁의 터전일까? 왜 기성세대 사람들은 젊은이와 젊은이의 생각과 소원을 좀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까? 생활 주변에서 보는 온갖 허위와 모순과 불의를 마치 사회 실정으로는 불가피한 것처럼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옳은 것일까? 산다는게, 여러분중 특히 어린 나이에 벌써 고달픈게 일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어찌서 마치 구조적인 장벽과 부딪치는 듯이 힘겨운 노릇이어야 하나? 여러분 나라와 폭력과 미움으로 가득한 오늘날의 세상에서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또 교회에 관해서도 물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과연 충분히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일까? 교회는 복음을 따라 살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보살피며 온갖 이기심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을 형제자매로 다루도록 여러분을 감도하고 있는가?

이처럼 여러분이 물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 미래의 희망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나는 그토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이해의 벽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시다. 갈 길은 있으니까요. 용기를 내시다. 여러분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속)

코오롱

MANSTAR



맨스타

전주특약점

☆코오롱 단체복 주문안내

직장 남·여 근무복, 단체복, 체육복, 기타 특수복 (회사, 금융기관, 정부기관, 백화점, 공장, 병원, 사회단체, 학교)

주: 김 아드리야노
전주시 중앙동 3가 26-1 ☎ ⑧ 8415
(전북은행 중부지점 앞)

고려페인트 대리점

- * 각종 페인트 도상매
- * 공사청부 * 집수리 전문
- * 각종 보수공사 일절 문의 상담

대한 도장공사

김 의 화(요셉)

☎ ③4874, ④6522

전주 서노송동(중앙성당 옆)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시설

☎ ③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교 구 소 식

1. 교구 혼인법원 : 7월 30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2. 7월 전주 시민강좌 : 일시-7월 30일 오후 8시, 장소-중앙성당
주제-농촌경제의 실상과 허상
3. 제12차 마리아 푸른군대 피정 : 일시-8월 1일(목) 10시~16시, 장소-전주덕진성당
강사-김동준 신부님(사목국장), 안병초 수사님(서울 마리아 수도회 지부장)
준비-접수비(1천원), 도시락지참, 피정 및 미사도구
4. 2지구 어린이 신앙대회 : 일시-8월 5일 10시 30분~4시, 장소-이리 시민문화회관
5. 남자 성소자 피정 : 일시-8월 18일(일) 오전 10시, 주제-행복의 길
대상-교·대·일반 성소자 모임 회원 및 성소에 관심 있는분
회비-2천원, 장소-가톨릭센터, 지참물-성서·필기도구·미사도구
6. 노랫말(가사) 모집
내 용 : ① '85교구 청소년대회(젊음의 한마당)의 뜻을 살리는 내용으로 하며 곡은 전전가요와 우리 민요로 한다.
② 창작곡도 환영함
대 상 : 전라북도 내 13세~19세 사이의 청소년
접수마감 : 8월 15일
보 낼 곳 : [520] 전북 전주시 서노충동 560-6 가톨릭센터 교육국(5-0041~3)
7. 원고 현상모집
주 제-청소년, 무엇이 문제인가?
소주제 1 : 사회안에서의 교회의 의미
소주제 2 : 청소년 교육의 바른길
소주제 3 : 청소년문화의 실상과 가야할 길
응모요령 : 가. 200자 원고지 30~40매
나. 주제-소주제 중 택 1
다. 우편 및 직접 제출
대 상 : 전라북도 내 13세~19세 사이의 청소년
원고마감 : 1985년 8월 15일
보 낼 곳 : [520] 전북 전주시 서노충동 560-6 가톨릭센터 교육국(5-0041~3)
8. 교구 빈철토시오 이사회 임원회 : 8월 3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사회복지회관
 축! 영명 : 성 이냐시오 축일(31) : 성태수·안철문 신부님. 축하합니다.

♣ 잡 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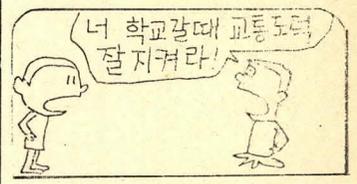
웃기를 여미자.

요즘 날씨가 무더운만큼 우리의 삶의 자세도 흐트러지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께 제사드리는 중요한 시간에 한 손으로 웃기를 들추고, 다른 한 손으로 술정이 주부로 부채질하며 짜증내는 그 얼굴의 부끄러운 모습이 마음 아프다.

지금 하느님께 제사드리는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오히려 더위에 찌들린 우리들의 삶을 다 바쳐 드리는 순간이 아닌가!

내 사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있는 이 순간만큼은, 더위도 더위도-, 좀더 겸손한 자세로 웃기를 여미자. 그리고 두 손 모두는 경건한 시간이 되도록하자.

요심이 (625) 김병오



영지·영지·영지!

최고의 건강식품 불노초

영 지 버 섯

- *직접 생산하여
저렴하게 보급합니다.
- *재배방법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합니다.
- *연락 주시면
안내서 보내 드립니다.

월성 영지 농장

최 택 승(날시소)
강 영 순(제노베파)
이리 ③4773 ③8953
이리시 월성동 403
(성글라라 봉쇄수녀원 앞)

*각종 탐 판매

명 랑 닭 집

교우 여러분들께는 열가로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판매합니다.

위치 : 대야 우시장입구
김 베 드 로

군산 태 광 약 국

☎ ① 8 0 0

구시장 사거리

교우 여러분의 만성질환 및 건강상담

-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 특수 파티클
- 고급 칩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벤지

서울 주 단

☎ ③0453 ③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3개월 수료 자격증취득 보장
개인지도, V.T.R 교육
취업보장, 개업 알선
미용을 하였으나 자신이 없으신분 상담 환영

현대 미용학원

중앙성당 건너편
코야백화점 앞
김 금 순(테레사)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옹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아파트 75-6389 사도회장 이 흥 재

- 1.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 29일~8월 4일, 아파트·본당 준비물-필기도구, 미사준비, 각종 작업준비 입학금 1천원-참가자 전원에게 교재 및 T셔츠 제 공함, 8월3일 오전9시부터 물놀이, 부모님참가 환영
- 2. 예비자 입교식 : 오늘 오전 10시에 합니다
- 3. 부녀회 월례회 : 30일 어머니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합시다
- 4. 중·고등부 산강학교 폐학 : 오늘 끝납니다 중·고지도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부모님, 사도회, 부녀회, 자모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5. 구역 봉사자 모임 :
- 6. 전자울갠 기금 신입합시다 : 31일까지 마감 이태영·김용환·익명-각10구좌씩, 이창환·김양선·서성남-각4구좌씩, 박종우-3구좌, 장성복·육판순·이창남·박태용·고양일·박은주·이강영·박태중-각2구좌씩, 박순남·정정수·송순복·유복자·조예수·장순녀·차동주·김진섭-각1구좌씩, 계-345,000원 누계 : 1,515,000원
- 7. 공소 순회미사 : 8월 3일 저녁 8시, 왕정공소
- 8. 금주전례 : 제1조, 차주는 제2조가 담당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404,875원 교무금 : 383,000원 신축금 : 269,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어린이 하계 성경학교 및 중·고등학생 수련회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 특별히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 사도회 : 8월 1일 저녁 8시 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 3. 자모회 : 8월 6일 오전 10시30분
- 4. 금주전례 : 해설-김배근·오정희 독서-①김나섭 ②박형식, 기도-요나회 차주전례 : 해설-김광수·김은경 독서-①함문권 ②한상철, 기도-셋별pr
- 지난주 봉헌금 : 일반-321,930원 중·고생-10,150원 주일학교-5,100원 계-337,180원 교무금 : 442,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끈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여

- 1. 섬마리아 꾸리아 : 오늘 오후 2시
- 2. 울뜨레아 : 29일 오후 8시 소강당
- 3. 사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4. 유아세례 : 8월 3일 오전 11시
- 5.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성가책 및 악보 보관을 위한 케비넷 기증을 원합니다 : 따뜻한 성원 있으시길...
- 6. 20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참여합시다 유춘자-2만원, 김중순-1만원, 감사합니다
- 7. 전동 여름 수일학교 :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자모회 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
- 8. 주일학교 어린이 수련회가 지금 무주 뒷섬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 9. 다음주 봉헌담당 : 송재진 부부
- 10.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이영희,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신일균 ②장금태
- 지난주 봉헌금 : 834,920원 교무금 : 594,5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 1. 사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 2. 복자 부녀회 : 8월 3일 오전 10시
- 3. 중·고 하기 수련회 : 29일~8월 1일 오전 9시 출발 진안 돛집, 사도회 주관
- 4. 미사시간 엄수 바람
- 5. 교무금 미수 완납 바랍니다
- 6. 숲정이 주보 한가정에 한장씩만 가져가세요
- 7. 견진사진 속히 찾아가시기 바람
- 8. 금주 성당청소 : 월-다위의 탐pr, 토-셋별 차주 성당청소 : 월-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 9. 금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천 진 ②정운주 차주전례 : 해설-김인식, 독서-①이갑진 ②김운자
- 지난주 봉헌금 : 193,520원 교무금 : 590,75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 1.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 29일~8월 3일 (6일간) 오전 9시~오후 1시
- 2. 첫영성체 교리 : 29일~8월 14일까지
- 3. 본당 우정의 날 : 31일 저녁 예비자와 새로 인도된 분을 초대합니다
- 4. 사도회 월례회 : 8월 3일 저녁미사 후
- 5. 구역 대의대회 : 8월 4일 공식미사 후
- 6. 하계 학생 중·고 교리 : 29~8월 3일 오후 3시~6시
- 지난주 봉헌금 : 112,780원 교무금 : 75,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 1. 축! 어린이 영세 : 21명, 첫영성체-49명
- 2. 애덕의 모후 뽀레시디움 탄생 단장-양베로니카, 부단장-임마리아 서기-송글라라, 회계-문에스텔
- 3. 감사합니다 성경학교, 산간 수련회에 수고하신 모든분들에게
- 4. 국·중·고 교리·셀 방학 : 8월말까지
- 5. 오늘 : 유아세례-10시, 자모회-11시30분
- 6. 성모기사회 : 8월 3일 오후 1시30분
- 7. 건축헌금(납입자) 100만원-김중술, 30만원-최승기, 15만원-강정숙 10만원-진효철·익명, 5만원-전대식·함용광·한우순 3만원-장미옥·황정순, 1만5천원-권정순, 1만원-조선자, 5천원-이삼례·유경자
- 지난주 봉헌금 : 512,970원 교무금 : 1,155,000원 건축헌금 : 1,895,000원